

길 (요한복음 14:1-6)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길”이다. 대부분 알고 있다. 불신자도 이 말씀을 알고 있다. 내가 길이라는 말은 내가 답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인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 된다. 참 간단하다. 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의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해보기 바란다. 길이 막혀서 아무도 열여주지 못할 길이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면 길 열여주겠다고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인생 참 간단하다. 길 열리면 된다.

언약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으실 이유 없다. 끝났다. 남은 것은 우리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언약이 있어야 한다. 언약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다. 내가 길이다. 언약이고 약속이다.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다. 그것을 보고 고백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선지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박살난다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언약 잡으면 그대로 되어야 하고 막을 인간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간단하다. 이것을 안해서 복잡해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다 던져버리고 이것을 하기 바란다. 지금 바이러스가 심해진다고 해서 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도 잘 쓰고 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크는 입에만 끼고 마음에는 마스크를 끼면 안된다.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침투당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승리해야 한다. 내게는 바이러스 안들어오게 해주세요. 언약이다. 과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킬 것은 지키되 마음은 승리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제 한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 한해 동안 주신 응답에 대해 감사하는 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해를 위해서 잘 계획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다음 해를 두고 반드시 잡은 언약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년도도를 두고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 이런 단어이다. 당연히 다민족도 포함된다. 다민족 지교회,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렘넌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학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다. 100명 이하 교회는 어떻게 하고 100이상 교회는 어떻게 하고 1000명 이상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100명 이상 교회에 중요한 단어가 70인 중직자였다. 이 말은 산업인 중직자와 함께 전도 중직자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이 세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조직전도를 두고 기도한지 몇 년 되었다. 그리고 14권 교재 공부하면서 팀사역 전도 이런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팀사역 전도는 사도바울의 전도 운동의 핵심이다. 팀이 되든 그냥 팀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전도이다. 이 팀사역 전도는 조직 전도의 핵심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는 일대일 전도가 아니라 조직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전도되는 시스템이다. 성경학자들에게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전도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본다. 사도바울의 전도가 일대일 전도였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제자가 많이 있어서 그 제자를 움직이는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직전도라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아직도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한 곳 있는 것 같아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잡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교회 사역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도들 외에 70인제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 밖에 있는 현장의 평신도 전도제자들을 말한다. 70인 전도제자, 중직자 제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한 훈련도 할 것이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주시고 응답하고 사명도 주실 줄 믿는다.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교회화 하고 현장화 할 필요가 있는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제 5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는데, 중직자들은 필히 들어야 한다.

그 다음이 렘넌트이다. 렘넌트는 개인이 훈련되어지고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렘넌트들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렘넌트 자체에 대한 훈련 뿐 아니라 렘넌트 훈련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영어권 사역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한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영어권 사역자가 부족하다. 다민족 제자중에서도 영어 할수 있는 사람 도와야 한다. 그런 분들 중에서 사역자 또는 전도자로 설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당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 하고 있고 장로님들도 이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렘넌트, 다민족, 사역자, 제자들 분발하기 바란다. 전에는 목사를 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오는 직업이었다. 목사가 복음이 정확하면 세상을 정복한다.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목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나는 전에 약사였지만 지금 누가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약국 차려주고 그 주변에 병원이 수천 개 있어도 나는 다시 약국 안할 것이다. 다른 직업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목사가 좋다는 것이다. 혹 오해를 할수도 있다. 내 생각이 지구가 70억인데 70억이 다 목사를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살릴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안된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청년,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중직자들도 인생을 이 일에 바치는 확실한 중직자가 나오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자, 중직자 사역자를 위하여 펀드를 만들어야겠다고 논의 중이다. 내년을 두고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단어 세가지를 말씀드렸다. 연말까지 내년과 관련된 우리의 방향과 비전을 한가지씩 나누도록 하겠다.

1. 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다. 주님이 1절에서 너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잡혀서 전부 걱정 체질이다. 믿음 체질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절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늘 땅이 걱정이다. 생각이 천국이 아니고 땅이 되어서 그렇다. 예수님은 땅, 이것은 생각도 없다. 천국이니까. 3절에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고 하셨다. 도마가 도마답게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나왔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는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게 그것이 길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길이 열릴것이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참 말 많이 있는데, 진리 가령 1+1=2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 진리를 말한다 이 거짓말은 절대 거짓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지옥이 나와버린다. 결과는 전부 죽는다. 그것이 뭐가 진리인가? 죽는데. 그것은 바보이고 병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다른 것은 거짓이야. 따라가보면 끝에 결국 지옥이야. 이 말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 당신 자신이라는 말이다. 사도행전 4: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천하 사람중 주신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딤펈 2:5절에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길이 천국가는 길로 쓰이는 길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길이라면 그것은 응답의 길 아닌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이다. 언약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해서 이라고 고발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참 우습다. 그리스도를 단어만 하고,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바울 아니겠는가? 서신서 읽어보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 더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체가 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14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것이라고 하였다. 또 요한복음 16:24절에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할거라고 하셨다. 길이니까. 무슨 길인가? 기도 응답의 길이다. 기도응답을 위한 다른 길이 있는가?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수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자신도 있다. 무엇이든 다 응답하실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단어가 잘 이해가 안될 것이다. 나도 그랬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100% 무엇이든지 된다고 말할수 있는가? 100%까지는 아니다.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다. 전에는 이런

단어를 읽으면 가슴에 사실 잘 안들어왔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잘 안들어왔다. 어떤 분든 나보다 나올수도 있다. 그런데 다르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발버둥치는 사이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전과는 다른점이다. 영적 치유이고 영적 상태 치유이다. 자기의 영적 상태만큼 말씀이 들린다. 그것을 개인들도 체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데 길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데 따라가보아 너 실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가 만일 나를 진짜 길로 알면 진짜 응답 받는다는 것이다. 인간을 완전응답으로 몰고 갈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 뿐이야, 그런 말이다. 인생 완전 응답을 위하여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다. 여러분 개인은 개인인생의 완전응답, 개인의 인생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신경쓰는게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단 종교생활이다. 그 그리스도가 100% 되어야 한다. 그런데 100% 된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 전부다 종교생활이고 전부다 부족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 100%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발전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다. 체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영적으로 한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가?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내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맨날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잘 안누려진다. 사실, 눈감는다고 잘 누리지나? 하루만에 100% 되면 참 좋은 것인데, 왜 안되는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써라 뭐라 어쩌라 하는 것이다. 나도 발버둥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비하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싶다.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한다. 다 드리고 싶다. 목사라고 품잡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목사보다 평신도라는 개념이 더 강한 인간이다. 맘대로 잘 안된다. 하나님이 어느날 되게 해주신다. 이런 것도 영적 상태의 발전이다. 그 답, 여기에도 내가 길이므로 너는 내게 오직 하겠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과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육신적 저주에 대해서도 내가 답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수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문제의 종류가 몇가지이겠는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만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언약가진 자의 기도로 해결되었다. 때로는 위기가 역전이 되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바뀌어 역전되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기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역전아인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언약계 옆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을때까지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가지인가? 성경이 소설인가? 아니다. 전부 언약 안에서 일어났다. 무슨 뜻인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야, 이 말은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즘 보좌의 축복이나 시공간의 빛 이런 단어들을 듣는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했다. 내가 길이야. 어떻게 237 빛이 되는가? 어떻게 시공간 초월하는 힘을 얻는가? 내가 길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가? 안일어나고 절대 안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다.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타나는 축복이다. 언약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오직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도, 오직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계속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다고 하셔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 뿐 아니라 육신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란다.

2. 보좌화

본부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일 것이다. 아주 중요한 영적 부분에 대한 표현이다. 24시가 되어진 사람이 표현할수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보좌화 된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나, 바울, RT7일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보좌화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바울의 인생은 보좌화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도바울은 우리와 달랐을 것이다.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보좌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해

야 하는데, 사도바울은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게 안되면 이런 말을 못 썼을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맞춰져 있다. 그것이 보좌화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 출발을 봐야 한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마 충격이었을 것이다. 사도바울의 머리에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 그럼 그 순간 그의 생각속에는 천지 개벽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때부터 그의 인생과 생각의 보좌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렘넌트 7명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바울이 그리스도 만난것처럼 우리도 만났나? 항상 출발이 중요하다. 여기가 출발이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그는 너희의 무엇이야?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이 필요한 수준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모세도 그 인생에 생각과 삶이 보좌화 된 사람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안그러면 그런 일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놀라운 인물이다. 우리 강철왕 카네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 청소부에게 사장 하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다. 배운것도 없고. 그때 카네기가 말했다. 니가 지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혹 니가 힘이 필요하면 힘 있는 사람 부르면 된다. 돈 주면 된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카네기는 자기 인생을 보좌화한 사람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는 생각이 보좌화 된 사람이었다. 중요하다. 그는 세월이 지난 사이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 몇 번 말했지만 어느날 하나님이 니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그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다거나 보좌화 안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할가 했더니 그래 해야조라고 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출발이었다. 차츰차츰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참 하나님께 어떤때는 기도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언약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슴을 쏟아내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진짜 기도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도이다. 그 때 기도하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문을 안 여시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전도에 선교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제자를 세워주셔야 내 경제를 하나님이 쓸 데가 있는 것 아니냐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려고 발버둥쳤더니 역사 일어났다. 역사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 하셨다. 내가 길이라고.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예수를 찾고 길이라고 고백하면 길 열릴 것이다. 믿는가? 진짜 믿는가? 그러면 오늘부터 하라. 크게 할 것 없다. 진심으로 하라. 잘 안되면 질문부터 하라. 예수님 진짜 길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다른가 안해도 됩니까? 진짜입니까? 질문부터 하라. 우리 중에는 자기 인생과 산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다. 참 감사하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 아직 응답이 안 나타난 사람도 있고 오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을 보좌화한 사람들이다. 강철왕 카네기처럼 아주 멋있게 하나님께 싹 드렸다. 마음이 없는 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시간표이다. 그것도 오기 전에 행동부터 옮기면 그건 종교이다. 그리고 한동안 고생한다. 그리할 필요 없다. 그런 때는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라. 아주 순리적이다. 절대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내 모든 재산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울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전에 행동부터 옮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참 내가 아무 필요가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받은 것은 다 은혜 뿐이고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자유이고 정복이다. 땅에 있는 무엇을 잡고 있으면 내가 길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 못한다. 그 사람 자유 안된다. 하나님 나도 자유하도록 이 문제에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 산업인, 70인 제자, 렘넌트 계속 일어나기 바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을 크게 뜨라. 계획을 크게 하라. 기도도 크게 하라. 하나님 살리실 바에야 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 한정되어 버리면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 뜻은 땅 끝이다. 남미 끝까지 가야 하고 미국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시작이다. 축복하실 줄 믿는다.